

나무꾼 형제와 돌궐구

엄광용 (동화작가)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읜 후 이들 형제는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끼니를 해결하며 살면서도 의가 좋기로 소문이나 있었습니다.

“너희들 형제는 아무리 가난해도 의좋게 살아야 한다. 의좋게 살면 복이 들어오지만, 의가 상하면 복이 나간단다. 이 점 명심해서 부디 잘 살아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을 이들 형제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산으로 나무를 하리 갔던 형제는 땅 속에 파묻힌 이상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꼭 스님들이 머리에 쓰는 빙거지처럼 생긴 돌인데, 캐놓고 보니 잘 다듬어진 돌궐구였습니다. 엎어놓으면 돌종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버님 유언처럼 우리가 의좋게 살기 때문에 굴러들어온 복이다. 집으로 가지고 가자.”

형은 동생과 함께 깅gingame 돌궐구를 지게에 실었습니다. 그날은 서로 교대해가며 돌궐구를 쳐야 했기 때문에 나무 허는 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궐구는 보기보다 엄청 무거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돌궐구를 집으로 옮긴 형제는 곳간에 남겨둔 나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돌궐구에 나라을 짓어 밥을 해먹자.”

“돌궐구가 잘 생겨 밥맛도 엄청 좋을 거야.”

형제는 열심히 절구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구질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만 들지 나라이 잘 짓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한 돌궐구도 다 있구나. 좀 쉬었다 하자.”

형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돌궐구 안을 들여다보던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형, 나라이 금덩어리로 변했어.”

“뭐라고?”

형도 벌떡 일어나 돌궐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돌궐구

안의 나라들은 모두 빙찍거리는 금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금덩어리를 얼른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형제는 가슴이 두근 반 서 근 반 했습니다. 죄도 짓지 않았는데 금덩어리를 어디서 훔쳐온 것처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됐다!”

금덩어리를 숨기놓은 후 형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부둥켜 않고 소리쳤습니다.

“나라면 있으면 우리는 돌궐구에 짓어 금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

형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나라이 다 떨어졌으니 내일 이 금덩어리를 팔아 나라을 사오자.”

동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음날 형제는 금덩어리를 팔아 나라을 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돌궐구에 나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짓었지만 나라은 쌀로 변할 뿐 금덩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것을 반복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그래도 이 돌궐구 때문에 나라이 몇 가마니나 생겼잖아.”

형제는 금덩어리를 팔아 사온 나라 덕분에 몇 달 동안 끼니 걱정 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이다 떨어져가던 어느 날 돌궐구를 짓던 형제들은 소리쳤습니다.

“금덩어리다!”



그림 김경태

나락이 어느 사이 금덩어리로 변해 돌절구 안에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돌절구는 끼니가 떨어질 만할 때면 나락을 금덩어리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먹고 살 만큼만 형제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현명한 돌절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이제 형제들도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형과 동생이 모두 짹을 만나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재산이 돌절구밖에 없었으므로 서로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돌절구만 있으면 평생 먹을 것이 보장되니, 대단한 보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 의좋다고 소문난 형제는 결혼을 앞두고 매일 돌절구 때문에 싸우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해결이 안 나자 고을 원님을 찾아가

관결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원님이 졸개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상한 돌절구를 가져오너라.”

원님도 돌절구의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졸개들 여덟 명이 돌절구를 우마차에 싣고 관청으로 돌아오는 데, 소가 갑자기 귀신에 훌린 듯 날뛰는 바람에 비탈길에서 마차가 엎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졸개들이 달려가 보니 마차에 실었던 돌절구는 땅에 떨어져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을 깨닫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의롭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